

# 2024 이 소그룹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 여는 질문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나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본문 이해

일천 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왕상 3:5)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상 3:11) 솔로몬은 이미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구할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잠언 1:7)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상 3: 6) 솔로몬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아들인 자기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자기의 작음을 인정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8절은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가운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안정적이고 부강해져 가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도 솔로몬이 가진 것보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셋째, 솔로몬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9)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 말씀 속으로

• 지혜와 훈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잠 1:2-3)

•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상 3:9)

###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 암송 구절 |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 자녀와 나눔

OO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OO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나의 한 가지 소원



새484장(통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새490장(통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예수 닳기를

### 여는 질문

새 해 첫 달이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계획 중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 본문 이해

오늘 읽은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야게의 아들이며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말이라는 것뿐입니다. 다만 솔로몬 당대 많은 지혜자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편 아굴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2절) 말합니다. 또 총명하지 않고(2절),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며,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3절) 그러나 이 고백은 그 많은 지혜자들에 비해 자기의 지혜가 낮음에 대한 표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아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크도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진리이며, 말씀에 더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6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의 힘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환란이나 역경이 닥쳐올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여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선동하거나 편한대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소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두 가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9절)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5-6절에서 말한 것 처럼 말씀은 순전하기에 그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을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씀보다 복 주신다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순전하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여 믿지 않고, 내 입에 쓴 말씀도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며,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는 가난하여져서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이 가지기를 늘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기 원하는 아굴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아닌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허영과 탐심, 불순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4년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말씀 속으로

• 아굴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 아굴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 삶 속으로

• 하나님께 바라는 내가 죽기 전에 원하는 소원 두 세가지를 생각해봅시다.

### 암송 구절 | 잠언 30: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 자녀와 나눔

하나님께서 올 한해 받고 싶은 것이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 가야할 길-‘십자가의 길’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새151장(통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새94장(통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여는 질문

예전 아이들 옷에 앞면에는 “뭘 해도 잘 될 놈”, 뒷면에는 “크게 될 놈”이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게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문 이해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가지 않은 길” 1연, 로버트 프로스트 / 피천득 역)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만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 속의 화자처럼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 합니다. ‘올로(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이기에 많은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이 그런가요? 내가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을 해보거나 가질 수 있나요? 그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보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배 아파합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배가 아파옵니다. 2장 전체를 읽어보면 더 배가 아파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헛되도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 역시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여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전도서 2장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한다거나 배가 아프면, 혹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

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전도자가 ‘헛되다’ 혹은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으로 채워나가려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프로스트 시의 마지막 연을 보기 원합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 4연, 로버트 프로스트 / 피천득 역)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시의 화자처럼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 말씀 속으로

- 전도자는 시험삼아 즐거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1-3a, 7-8, 10절)

## 삶 속으로

-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암송 구절 | 전도서 2: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 자녀와 나눔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휴가때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다녀온 친구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 사람이 해야 할 본분



새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여는 질문

현대인들의 다소 경미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깜빡증'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깜빡하고는 찾으러 다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 말고 중요한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 본문 이해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에도 세상 것들에 붙들려 염려하느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인생의 전부인 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신경을 자신의 자녀에게 쏟습니다. 자녀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자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전도자는 이또한 헛되다 합니다. (전 2:18-19) 성공을 쫓는 것도, 쾌락을 쫓는 것도, 부도 다 헛되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에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나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날이 오고,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날이 오고,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할 날이 오고, 눈도 희미해질 날이 오고, 귀도 어두워질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 12:3-7)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4) 시편의 기자도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대자이시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무합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일부러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고후 5:17)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무엇을 좇으며 사시겠습니까?

### 말씀 속으로

• 잊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

### 삶 속으로

•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하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 암송 구절 | 전도서 12:1a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자녀와 나눔

교회 다니면서 재미있었거나 즐거웠던 기억이 있니? 그때가 왜 그렇게 좋았어?

# A Wise Man Seeking Wisdom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O Love of God Most Full  
This Love



## Opening Discussion

Are you looking forward to what God will do for us in the New Year? Let's share the grace that God gave us last year and talk in anticipation of the grace that God will give us in the New Year.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Solomon offered one thousand burnt offerings, God appeared and asked, "What shall I give you?" (1 Kgs 3:5). At that time, Solomon asked God for wisdom to discern (1 Kgs 3:11). Solomon was already a wise man who sought wisdom. Even though he had many things to ask for, he was someone who could express a wish that would please God. Solomon knew who he was and who God was. This is why his words that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Prov 1:7) do not sound empty.

First, Solomon knew that the kingship came from God and that God's grace was with David. "You have shown great and steadfast lov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because he walked before you in faithfulness, in righteousness, and in uprightness of heart toward you. And you have kept for him this great and steadfast love and have given him a son to sit on his throne this day" (1 Kgs 3:6). Solomon knew that all power can be enjoyed only when God allows it and that it can only be had by God's grace. He further realized that the grace extended to himself, David's son.

Second, Solomon acknowledged his smallness. In 1 Kings 3:7-8, Solomon confesses, "I am but a little child. I do not know how to go out or come in. And your servant is in the midst of your people whom you have chosen." Solomon became the king of a stable and growing country. Despite this, he describes himself as a small child. He says he is just one of many people. No man in Israel was greater than Solomon. No power was greater than that of Solo-

mon. But Solomon confesses that God has made him king, and he asks for God's help. Third, Solomon did not seek vain things. "Give your servant therefore an understanding mind to govern your people, that I may discern between good and evil" (1 Kgs 3:9). What he sought was wisdom. He sought God's wisdom to govern well the people God had entrusted to him. He granted an intelligent mind, wealth, and even glory to Solomon, who sought wisdom to govern God's people well. Jesus also told us,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True wisdom is fear of the Lord. It is knowing exactly who He is, remembering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and acknowledging how small I am before God.

We must become wise people who seek true wisdom. If we seek true wisdom rather than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God will provide us with even what we did not ask for, just as He did for Solomon.

---

### **Into the Word**

- What are the benefits of wisdom and instruction? (Prov 1:2–3)

- What did Solomon ask of God? (1 Kgs 3:9)

---

### **Into our life**

- If God were to ask me now, as God did Solomon, "What shall I give you," what would I ask of God?

---

### **Memory Verse | Proverbs 1: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

###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love God? The Bible teaches that loving God is wisdom, but how can you express your love for God?

#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Leviticus Proverbs 30:1-9

## My One Desire



Be Thou My Vision  
There's a Dream That I Dream  
Take after Jesus



### Opening Discussion

It is already halfway through the first month of the New Year. Have you been able to keep up with your New Year's resolutions? If so, what are they and what did you leave out?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day's reading comes from the Proverbs of Agur. Not much is known about who Agur was, and he doesn't appear in other parts of the Bible. According to verse 1, he was the son of Jakeh, and these were the words delivered to Ithiel and Ucal. It is speculated that he was one of the wise men during the reign of King Solomon.

Agur humbly describes himself as someone who is "more brutish than any man" (v. 2). He confesses his lack of understanding (v. 2), his inability to acquire wisdom, and his ignorance of the Holy One (v. 3). However, this confession is not just an expression of his identity in comparison to other men, rather, it is about his inadequacy before God.

Before God, men are foolish and ignorant. Agur knew how mighty and powerful God is. He acknowledged that God is the author and creator of heaven, earth, wind, and waters. At this time, he humbly admits that he is an ignorant man who can't fully comprehend the greatness of God.

From there, Agur transitions to speak about the word of God. He says that God's words are pure, and adding to His words will result in rebuke (vv. 5-6). God's words guard us. The power of His Word remains unaltered. We can rely on His Word to persevere when adversity or chaos surrounds us. Even when the world becomes chaotic and disorderly, God's truth remains unchanged. We cannot distort, manipulate, or misinterpret His Word to suit our convenience, for God will rebuke us and prove us liars.

Now, Agur expresses his desires. He lifts a petition for two things (vv. 7-9).

First, he prays to be kept from falsehood and lies. As it was mentioned in verses 5-6, he

resolves to live honestly before God and asks for His help, for he knew the purity of God's Word. So often, we prefer blessing over obedience. We are busy pursuing vanity instead of worshiping God. Let's commit our lives to live according to the pure Word of God. Let's choose God's Word and follow it even if it isn't always comfortable. Let's commit to a life of righteousness and goodness.

Second, Agur prays for neither poverty nor riches but only his daily bread. He prays that he does not want to be rich so that he will not forget God. He also prays that he will not be poor, which can cause deceit and wickedness that will dishonor God. We often grieve God more than not. Our greed makes us want more, and we want to climb our social ladder. We justify our wrongdoings to gain more. I learned from Agur's prayer that I need to seek only what is necessary.

We need not wealth or poverty but the manna and quail that God gave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His grace allows us to be satisfied with what we have today and be content in God. Let's pray together that 2024 will be a year where we turn away from vanity, greed, disobedience, and falsehood and instead find satisfaction in the Lord's grace.

### **Into the Word**

- According to Agur's confession, who is his God? (v. 4)
- Why did Agur ask not to be given into poverty or riches? (v. 9)

### **Into our life**

- Think about two or three wishes you want to accomplish before death.

### **Memory Verse | Proverbs 30:8**

Remove far from me falsehood and lying; 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es; feed me with the food that is needful for me.

###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o you want to receive from God this year?

What do you think God wants to give you?

## The Path We Must Take – Path to the Cross



O Thou, In Whose Presence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I'd Rather Have Jesus



### Opening Discussion

I saw a logo on children's t-shirts saying "You, big deal" or "Gonna be a big shot."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and why?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Robert Frost, 1st stanza of "The Road Not Taken")

There is one condition for every human being. We all only have one life. There is no one who lives twice. Everyone also dies. There is no one who is immortal. Many people regret the paths they have not taken. There is an expression, YOLO which means "You Only Live Once." Since we only live once, many people make their own bucket list of what they want to achieve, travel, and possess. However, does life really go with a bucket list? How many people on earth enjoy and accomplish things on their bucket lists? There are more people who can not even come close to living their wish list and dreams. When we meet people who have more than us or accomplish more than us, we get jealous or upset. If you read Ecclesiastes 2 and find what the author of the book listed as his accomplishments, we feel more jealous. However, the conclusion the author of the Book of Ecclesiastes arrived at after having them all is, "All is vain." If you read St. Augustine's "The Confessions," he shared that he sought all pleasures and desires as a young man and wasted his time. St. Augustine is commemorated as a saint who is far from these worldly pleasures. If we get upset after reading Chapter 2 of Ecclesiastes and St. Augustine's "The Confessions," we need to examine ourselves one more time. "What am I seeking right now?" "What is my priority?"

When the author of Ecclesiastes confessed the vanity of worldly pleasures, he wanted to give a lesson on the meaninglessness and finality of temporary and physical pleasure and desires. Apart from God, it is foolish and meaningless to seek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of worldly pleasure. Apostle Paul says in Galatians 5:17, “For the desires of the flesh a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the things you want to do.”

A poet, Robert Frost continues his poem, “The Road Not Taken.”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Robert Frost, 4th stanza of “The Road Not Taken”). We can’t take two roads. Like the poet of this poem, would you like to confess that you have taken the road which was traveled less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The road is the path to the cross.

---

### **Into the Word**

- What did the author of Ecclesiastes do to seek pleasures out of curiosity? (vv. 1–3a, 7–8, 10)

---

### **Into our life**

- Have you ever experienced a time (or times) when things did not work out even though you gave your very best? What did you do when you experienced disappointments from a situation like this?

---

### **Memory Verse | Ecclesiastes 2:11**

Then I considered all that my hands had done and the toil I had expended in doing it, and behold, all was vanity and a striving after wind, and there was nothing to be gained under the sun.

---

###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you see your friends who wear better name brand clothes, live in luxurious houses, and vacation in expensive places your family cannot afford, what kind of thoughts do you have?

#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Leviticus **Ecclesiastes 12:1-14**

## The Duties of a Human Being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When We Walk with the Lord  
We Shall Be like Him



### Opening Discussion

Modern people have a mild illness called "forgetfulness." We forget where we put our car keys. Where are our cellular phones? We look for our stuff everywhere. Have you ever forgotten something very significant? Share your experience.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at are you seeking? Even during a worship service, there are congregants who are obsessed and consumed with worldly concerns and priorities and cannot focus on worshipping God. Also there are people whose lives are all about their children. Their whole energy is focused on their children. Due to the activities of their children, they skip Sunday worship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resources for a more comfortable life for their children after their passing, some parents work way too hard. The author of Ecclesiastes proclaims that everything is meaningless and vain (2:18-19). Whether you seek success, pleasure, or riches, everything is meaningless. Death makes everything meaningless. According to the author of Ecclesiastes, the strong arms you have now will be weakened. Your strong legs will become weak and stooped. There will be the day when our teeth will fall out and we cannot chew well. There will be the day when our eyes cannot see well, our ears cannot hear well. Death will be near for all of us. In Ecclesiastes 12:3-7, the author urges us to remember our Creator. The psalmist was clear on presenting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hold onto when we live in this world. In Psalm 23: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The psalmist also saw the Lord and saw the rod and the staff.

All human beings are supposed to reach genuine happiness in God the Almighty, the Cre-



ator. Therefore, everything in this world is meaningless and vain. True wisdom is to honor God with your whole heart. Psalm 119:105 says,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When we rely on God, we know where we are going. The world without God is totally a mess. When death comes, everything is over. The world does not want to talk about death. Intentionally, the world encourages people to not think nor talk about death. That is the worldly way. In Jesus Christ, death can be a new beginning of a new creature. All old ones have passed and everything is new (2 Cor 5:17). Death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eternal life. Honoring God and following God’s commandments, these are the duties of human beings. What will you seek?

---

### **Into the Word**

- What is the one thing that everyone should remember as their final destiny? (v. 7)

---

### **Into our life**

- When have you felt that “Ah... I am getting old?” How have you behaved after having this kind of thought?

---

### **Memory Verse | Ecclesiastes 12:1a**

Remember also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

###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ever experienced fun and joy when you were in church? Why did you like those specific times, events, and seasons in church?